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 ⑳

그림 속을 걷는 정원_ 걸리버가 머무는 자리

정원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백색 도화지다. 어린 시절 친숙했던 동화 속 주인공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를 상상하며 다양한 색채로 그린 가든 디자인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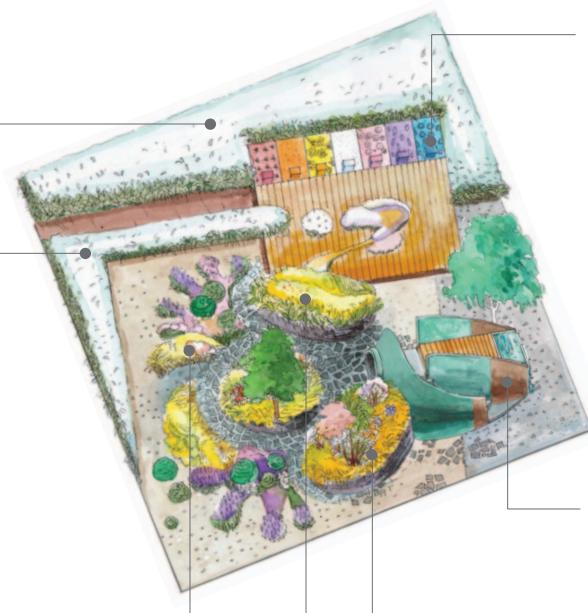


이 정원은 '걸리버가 머무는 자리'라고 이름 붙인 디자인 사례다. 걸리버는 유토피아를 향한 소망을 멈추지 않는 존재다. 현대인은 걸리버처럼 원초적인 자연을 동경하고 차용하는 방법으로 정원을 꿈꾼다. 정원 디자인은 '걸리버 같은 동화 속 인물이 놀다 떠나간 정원은 어떨까?'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오딜롱 르동'이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처럼 아생적이고 원색이 많이 섞인 정원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그라스 위주로 식재하여 아생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여기에 아생화들을 혼합식재해 그라스의 아름다움을 더욱 극대화했다. 꽃병 동굴, 폭포 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 연출까지 제안해 관람자로 하여금 탐험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정원공간 계획

그라스 초화 화단

키 큰 그라스와 야생화의 군식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



파레트 화단

화기가 길고 화려한 색상의 초화로
식재한다.

허브 야생 화단

허브로 부드러운 야생성을 표현하고
색상의 다양성을 준다.

초화 그라스 화단

그라스의 높이를 달리하고 부드러운
야생화 군식으로 허브화단과
자연스럽게 연계시킨다.

식재 계획



측면도

식재 계획표

그라스 초화 화단												
번호	식물명	3	4	5	6	7	8	9	10	11	12	
1	엑새											
2	파니움											
3	산세풀											
4	절굿대											
5	배조향											
6	루드베기아											
7	숙근버베나											
8	큰꿩의 비름											
9	서양미역취											
10	아스타											
11	백선											
12	산국											

초화 그라스 화단												
번호	식물명	3	4	5	6	7	8	9	10	11	12	
1	그라스 공통											
2	탈수염풀											
3	길사초											
4	김의털											
5	톱풀											
6	별가忤											
7	에키네시아											
8	노랑빼꽃채											
9	꽃별무											
10	동자꽃											
11	오이풀											
12	부처꽃											

허브 야생 화단												
번호	식물명	3	4	5	6	7	8	9	10	11	12	
1	로즈마리											
2	아티초크											
3	일리움											
4	블루세이지											
5	프렌치라벤다											
6	에키네시아											

파레트 화단												
번호	식물명	3	4	5	6	7	8	9	10	11	12	
1	미가忤											
2	아이리스											
3	암귀비											
4	프렌치라벤다											
5	란타나											
6	엔젤로니아											
7	루피너스											

수목리스트												
번호	식물명	3	4	5	6	7	8	9	10	11	12	
1	수양버들											
2	마가목											
3	남매											
4	하어리											



부분 이미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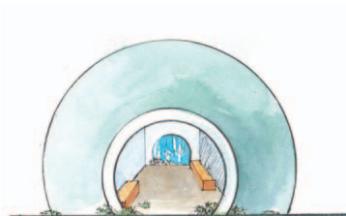
실제크기 : 16m x 16m

휴식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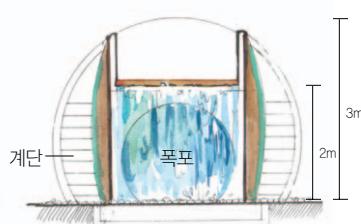
꽃병 동굴 _ 그늘막을 주는 특별한 느낌의 쉼터를 제공한다.

데크 _ 두 개의 데크는 높이와 각도를 달리해 감상포인트를 차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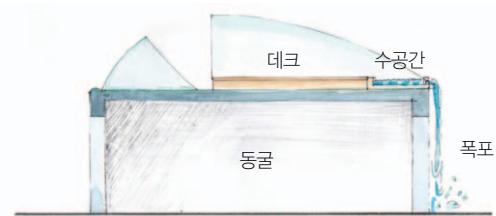
수공간 _ 다양한 위치에서 수공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꽃병 동굴 속 폭포를 통해 원시성을 확보한다. ▲



꽃병 전면(동굴 안으로 폭포가 보임)



꽃병 후면



꽃병 단면도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튜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일산세계꽃박람회 초청작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ildgarden3@naver.com